

2주-2주차 :

* 로마시대와 중세

2-2-1

2-2강 file no.1

자, 그러면 2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2회 차에서는 로마 시대와 중세에 일어난 심리학적 생각의 터 닦기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주-2주차 학습목차

- * 1.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
- * 2. 중세와 교부 (Scholarstic) 시대
 - * 2.1. 교 부적 기독교 전통 (부경적)
 - * 2.2. St. Augustine
- * 3. 중세 중기
 - * 3.1. 아퀴나스 이전
 - * 3.2. St. Thomas Aquinas
 - * 3.3. 아퀴나스 이후
- * 4. 이슬람의 능력 심리학
 - * - Ibn Sina
- * 5. 중세문화의 변성
- * 6. 중세 후기
 - * 6.1. 경험주의의 재탄생
 - * 6.1.2. William of Ockham
 - * 6.2. 분석과 이성의 한계
 - * 6.3. 중세의 현대과학에의 기초

2-2-2

2-2강 file no.2

2주 2회 차 학습 목차는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 중세와 교부 시대, 중세 중기, 이슬람의 능력 심리학, 중세 문화 일반, 중세 후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학문적 생각들은 과학이 철학에서 분화되기 이전이니까 철학적 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세의 철학적 사조를 알려면 Hyman과 Walsh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¹⁾

1) Arthur Hyman, James Jerome Walsh (Eds.) (1974).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The Christian, Islamic, and Jewish Tradition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http://books.google.co.kr/books?id=B6eKNaZW_vMC&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

중세 철학에 대하여 학자들의 원전 글을 영문으로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책의 다음의 내용 목차를 보면 중세의 학문적 논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접근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 Early Medieval Christian Philosophy/
2. Islamic Philosophy
3. Jewish Philosophy /
4. Latin Philosophy in the Thirteenth Century
5. Latin Philosophy in the Fourteenth Century

이 중에서 이 강의에서는 3번의 유대 철학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들을 간단간단히 언급한다. 자세한 것은 위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주-2주차 학습 목표

- * 1. 로마시대와 초기 기독교의 관점의 이해와 이것이 심리학 발전에 미친 영향 이해
- * 2. Augustine과 Thomas Aquinas의 심리학의 요점과 그 영향 이해
- * 3. 이슬람 문화의 과학적 경향 이해
- * 4. 중세 후기 특성 이해
- * 5. 중세 후기의 경험주의, 과학론의 재탄생 역사 파악

2-2-3

2-2강 file no.3

2주 2회 차 학습 목표는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의 관점의 이해와 이것이 심리학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성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리학적 생각의 요점을 이해하고, 이슬람 문화가 과학과 심리학적 생각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이해하고, 중세 후기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중세 후기 경험주의 재탄생 역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 라틴(로마)시대와 초기 기독교

- * Alexander -> Hellenistic -> Alexandria
- * Christianity = 희랍의 생각들 + 유대인 생각들
- * 로마 문화 = 희랍 문화 위에 기독교 생각 도입
- * Ravenna, Byzantium이 기독교의 중심이 됨
 - * Galen - 과학적 의학, 생리심리학
 - * 마음의 개념 => 영혼
- * Skepticism: 360-270 BC;
- * Epicurean: 341- 270 BC;
- * Stoics: 333-262BC; Zeno ;

2-2-4

2-2강 file no.4

슬라이드를 보시면,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희랍 시대가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레니즘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는 다름이 아니라 희랍의 생각들과 유대인의 생각들이 통합되어 나름대로 재구성된 것이 그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로마 문화는 희랍 문화 위에 기독교 생각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로마와 중세 사이에 경험주의적인 입장이 조금 진행이 되었고, 로마시대에 회의론자들, 에피쿠리안들, 스토아학파들 이런 사람들이 출현했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실제 연구, 입장들이 전개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하여야겠지만 이 시대에서 후대의 과학적 심리학 형성과 생각 발전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Galen이라는 의학자였습니다.



Galen

- * 희랍의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최고의 의학자, 생리학자 : **마음은 두뇌에**
- * 과학적 의학
- * 4 체액 이론
 - > 4 qualities
 - > 성격유형 분류
- * 정신병의 생리심리적 기원 -> 치료법
 - * 심적 특성이 신체에 영향줄 수 있음
 - * **사랑에 빠진 여인**
- * 신체는 영혼의 종

2-2-5

2-2장 file no.5

Galen은(Aelius Galenus 또는 Claudius Galenus라고 부름; AD 약 129-200) (<http://en.wikipedia.org/wiki/Galen>) 희랍의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당시의 최고의 의학자이며, 중세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최고의 의학자이며 생리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그의 생각들을 개괄해 보면, Galen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마음의 위치를 마음은 두뇌에 있다 라고 보았고, 과학적 의학을 발전시켰고, 히포크라테스의 생각에 기초해서 4체액(humor) 이론을 제시했고, 네 개의 체액이 성격 유형을 결정한다는 성격유형 분류를 제시를 했고, 정신병의 생리 심리적 기원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임상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psychosomatic]한 입장, 즉 심적 특성이 신체에 영향을 줘서 정신병이나 심리 이상이 생긴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했고, 사랑에 빠진 여인이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희랍의 플라톤 류의 합리론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신체는 영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영혼 강조의 관점을 따랐습니다.



- * Skepticism: 360-270 BC;
 - * 감각, 지각의 불신, 일반적, 보편적 결론 수용 안 함
- * Epicurean: 341- 270 BC;
 - * 쾌함의 선함 측면, 고통의 회피와 쾌의 추구
- * Stoics: 333-262BC; Zeno ;
 - * 자연의 법칙성, 이성, 통제, 절제 강조
 - * 삶의 불운 수용, 결정론적: 행복은 개인의 이성 우주의 것과 조화되게 함에 있음
 - * 개인의 운명은 더 큰 신적인 이성적 전체의 일부임을 수용



2-2-6

2-2강 file no.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Galen 이후의 회의론자들, 쾌락주의자들, 스토아학파들이 거론되는데, 이들의 기본 사상에 대하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감각 또는 지각의 경험에 의한 지식 획득함을 불신하였고, 따라서 귀납추리에 의한 일반적, 보편적 결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주의자들(Epicureans)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함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스토아학파에서는 반대로 자연의 운행이 법칙적임과 이성, 통제, 절제를 강조하였으며 결정론적 입장을 주장하였고, 사람들이 불운을 수용하여야 하고, 행복은 더 큰 신적인 이성적인 전체의 일부임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우주에 조화되게 살아감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역사적으로 후에 심리학의 여러 개념이 발전되는 데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사상

- * 1. 아리스토텔레스의 - reason -> 바리세인 ->
 - * 2. 헬레니즘의 개인주의
 - > 바빌로니언즈 -> 유대인 -> Essens
 - * 3. 유대인 - 유일신,
 - * 4. 스토아학파
- * => Jesus => 나름대로 새 조합

2-2-7

2-2강 file no.7

다음으로 기독교 사상을 살펴보면, 기독교 사상은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관념론(이데아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현실을 떠나서 보편적 진리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그런 입장을 그 기초로 하고, 거기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이성적 사고 등을 바리세인들이 조금 추가 조합을 하고, 헬레니즘의 개인주의를 조합하고, 이것이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일신의 개념으로 조합되고, 거기다가 스토아학과 사상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서 얘기하는 벌과 보상, 지옥과 천국 등의 개념이 조합되고, 이것이 유대인이었던 예수에 의해 나름대로 통합되어서 기독교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들 사이에서 희랍 시대부터 내려온 개념들에 이러저러한 주변의 다른 사상들이 조합되면서 그 것이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재구성된 여러 생각들의 조합의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ucretius (1 A.D.)

- * **최후의 희랍 자연주의자;**
 - * 그때까지 자연에 대해 알려진 바를 요약하려 함
- * **사망하면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신체의 무게가 줄어든다**
- * **- 지각 - 대상에서 방출된 필름/idols**
 - * (감각/지각 이론) → F. Bacon
- * **심신 통일성, 감각이 지식의 원천, 진화론**
 - * 일원론 ← 아리스토텔레스

2-2-8

2-2장 file no.8

기독교 사상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독교 사상은 주로 초월주의적 이성론이었는데 반해서 그래도 당시에 자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Lucretius는 최후의 희랍 자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 시대까지 자연에 대해서 알려진 바를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신체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몸무게와 사망 직후의 몸무게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영혼 자체의 무게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도출됨.) 나름대로 자연주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는 대상 지각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된 필름(film 또는 idol) 또는 이미지(image)가 전달되어서 지각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말했던 희랍 시대의 다른 학자들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중세 후기의 베이컨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심신통일성, 감각이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 진화론, 일원론 이런 것을 애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플라토니즘(Neoplatonism): 2세기;

- *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중요한 철학
= 초기 희랍 전통 + 유대교 및 기독교 신비론
- * = 철학 + 종교 => 중세
- * 강조: 지적 원리, 영혼의 활동,
- * 물질적 세계의 일시성/
- * 악의 문제/
- * 감각의 착각적 특성

2-2-9

2-2장 file no.9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자연주의적인 입장과는 대립되게 신 플라토니즘이란 것이라고 하는 것이 2세기경에 발전 되었는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후에 가장 중요한 철학 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플라토니즘은 초기 희랍 전통에다 유대교 및 기독교의 신비론에서 철학과 종교가 통합된 그런 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조에서는 지적, 이데아의 중요성, 이성의 중요성, 영혼의 활동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했고, 물질은 일시적이고 착각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데아만이, 보편적 이데아만이, 신의 원리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 문제를 다루었고, 감정의 착각적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2. 중세와 교부 (Scholarstic) 시대

2-2-10

2-2강 file no.10

이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중세 교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 Patriastic period (敎父 시대) >>

* Platonism	교부시대 기독교
* 신학의 자리 없음:	신학
*宿命론적 :	낙관적
* 영혼은 참form을 찾아 우주를 배회:	신을 만남
* 내성적, 사변적 삶이 덕목:	행위와 개혁이 덕목
* 합리주의의 최고봉:	초월적 지식
* 이성이 등불 :	믿음이 등불
* 초월적 진리의 존재 인정:	신의 지혜를 공유하여 우주의 본질 이해
* 최종의 진리 추구:	지식의 전파

2-2-11

2-2강 file no.11

이 슬라이드에서는 교부 시대와 플라톤의 사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보다는 이후의 내용에서 더 자세히 언급되기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플라토니즘의 생각들이 [신학 영역의 자리를 열어두지 않았고,宿命론적인 사고, 영혼은 참 형상을 찾아 우주를 배회한다는 생각, 내성적이고 사변적 삶이 덕목이라는 생각, 이성의 존중과 합리주의의 추구, 초월적인 최종의 진리를 인정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생각들이 중심이었다면, 교부 시대의 기독교 사조는 [신학의 영역을 열고, 낙관적인 사고, 인간 영혼이 신을 만나는 과정을 강조하고, 행위와 개혁이 덕목이며, 초월적



2.1. 교부적 기독교 전통 (부정적)

- * 플라토니즘과 교부주의의 특성 비교 생략 :
- * 표 참조
- * (-)1. 인간은 자연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
 - * > 동물생태학적, 진화론적 관점의 발달을 저해
 - * 지식, 행위, 의지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저해
- * (-)4. 스토아학파의 숙명론과 플라톤 학파의 관념론이 조합되어 지각의 중요성을 소홀히 함
 - * - 반지적 경향 -> 과학적 진공상태

2-2-13

2-2강 file no.1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교부적(scholastic) 기독교 전통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연과는 다른 독특한 존재임이 강조되고, 인간이란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 라는 그러한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 생태학적, 진화론적, 경험주의적 심리학이 발달하는 데에는 저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행위, 의지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저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토아 학파의 숙명론과 플라톤 학파의 관념론이 조합되어서 감각, 지각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지성적, 분석적, 비판적 경향에 반대되는 입장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상들이 과학적으로는 진공 상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 * 2. 인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 인본주의적 생각
- * 3. 심리-물리 이원론 강조 ->
 - * (-)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킴
 - * (+) 유물론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함
- * 5. 합리론 + 신비론 -> 직관론
 - * => 인간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의식적 동기 또는 의도 강조
- * 6. 심리적 이탈을 병으로 규정하는 이론 제시

2-2-14

2-2강 file no.14

교부 시대의 기독교 사상의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인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은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적 생각이었는데, 이런 것은 심리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물질의 이원론을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모든 것을 유물론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희랍 시대의 입장으로부터 마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의 기독교 사상은 합리론과 신비론을 전개해서 직관론이 형성됐는데,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의식적 동기, 의도를 강조한 것은 나중에 현대심리학에서 프로이트에 의해서 무의식적 측면, 동기적 측면, 성격적 측면을 생각하는 생각 형성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이탈을 병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서 (물론 거기에 신이나 악마가 개입한다는 얘기가 강조되기는 했지만 하여간), 심리적 이상, 심리적(정신)병을 분석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생각을, 또는 심리학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 시대의 기독교적 생각이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 St. Paul (3 세기)
- * soul, mind의 구분;
- * 전자는 불멸
- *

2-2-15

2-2강 file no.1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성 바오로(폴)가 영혼과 마음을 구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2. St. Augustine (354-430 A.D.)

- * 스토아 학파, Neoplatonism, 기독교 신앙을 조합
 - * → Christian Platonism이라는 새 세계관으로 정립
- * - 인간만이 영혼, 성령을 가지고 있음
 - * 비연속성, 이원론 (비물질적 마음)
- * 심리학 - 신체의 연구가 아니라 영혼의 연구
 - * 초월주의
- * 인간행동의 불규칙성 <- 신의 개입
- * 뇌의 前中後 ventricles의 기능 분화 시도
- * 과학하는 것은 죄짓는것

2-2-16

2-2장 file no.1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성 Augustine(354-430 A.D.)의 입장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스토아학과 의 생각과 신 플라토니즘하고 기독교 신앙을 조합해서 기독교적 플라톤주의라는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비연속적이라고 생각하며 인간과 동물을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는 또 비물질로서의 마음을 주장했고, 또한 심리학은 신체연구가 아니라 영혼의 연구이다 라고 주장해서 초월주의적인 입장을 전개했고, 인간의 행동은 신이 개입하기 때문에 규칙적일 수 없으며 불규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과학한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학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뇌의 전, 중, 후 뇌강(前中後 ventricles)을 구분하고 그 기능을 거론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장 file no.17 슬라이드는 성오거스틴의 모습 그림 파일인데 생략하기로 합니다. 어거스틴의 모습 그림과 기타 자료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ugustine_of_Hippo



- * 내성적 관찰법 :
 - * introspection을 심리학의 연구 방법으로 출발시킴
- * 자유연상, 통제 연상(인출 확률)
- * 사고(inner sense)와 5감각(outer senses) 구분
- * 아동심리학
- * 의식의 통합적 본질
- * 자유의지, 개인 차, 개인의 죄와 관련하여
 - * 행위의 내용은 - behavior;
 - * 행위의 의도는 : motivation

2-2-18

2-2강 file no.18

Augustine의 다른 공헌을 거론하자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 신의 계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성을 많이 하게 됐고, 내성적으로 자신의 마음 현상을 관찰하는 내성 관찰법을 상당히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생각이 떠오르고, 신에 대한 생각, 악의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유 연상이라든지 통제 연상이라든지, 연상의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게 됐고, 흔히 말하는 신체적 감각의 다섯 가지 감각과, 그 것을 통합하는 내적 감각(inner sense)으로써의 사고를 구분하는 측면에서 후에 심리학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동의 마음 발달을 얘기를 함으로써 후의 아동 심리학 형성과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의식의 통합적 본질의 문제를 거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위의 의도,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학이 나중에 관심을 갖고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후 라틴세계

- * AD 200부터 문화, 철학 쇠퇴
- * 476 AD- 로마 멸망
- * 히랍 문화와 이후 문화의 2개의 지적 긴장
 - * - 합리론대 경험론
 - * - being 대 becoming

2-2-19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성 Augustine 이후의 라틴 세계의 일반 문화 현상을 언급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중세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합리론 대 경험론의 대립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경험론은 완전히 억압되고 합리론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 * - 미신적, 봉건주의, 각종 불확실성이 삶을 지배하고, 신의 개념이 지배하며 시간 개념이 모호했기에 자연적 인과관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음
- * - 희랍과학은 실험과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합리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 * 그러기에 그 주장적 명제들을 타당화 하기에 실패하였다.
- * 중세과학은 합리론의 위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기에 주장적 명제를 산출해 내기에도 실패하였다.
- * 12세기 르네상스
 - *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사라센, 스페인을 통해 유럽기독교국가로 전파됨

2-2-20

다음 슬라이드에서 중세 전체에 대해서 짧막하게 요약을 제시해놓았는데, 중세는 미신적 봉건주의와, 각종의 불확실성이 삶을 지배하고,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모호했고,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이 그리고 주술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중세에는 희랍의 과학적 접근이 실험 과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희랍 학문의 합리론 적인 측면만 중세에 전달되었고 과학적 입장은 제기되지도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 당시에 이슬람 문화라든지 그 영향을 받은 스페인이 그나마 희랍의 경험 과학적 입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중세의 심리학

- * 중세과학은 합리론에 미흡
- * 심리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로 취급
 - * 감각
- * Inner sense
- * Outer sense
- * 마음의 상위 수준성

2-2-21

2-2장 file no.21

중세의 심리학에 대하여 종합하자면, 중세의 과학은 합리론에 미흡하였습니다. 신비론에 가까운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입장들이 조금씩 기독교 입장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의 영역은 물리학의 한 분야로 생각되었고, 감각 측면을 다루는 것을 생각했고, 내적 감각, 외적 감각(즉 5감)을 구분하고, 마음이란 것이 감각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제기될 배경이 형성되었습니다.



3. 중세 중기

- * 중세 중기에는 Aristotle의 저서들이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번역 소개되면서 지적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지식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비종교적인 지식을 가져옴.
- * Aristotle과 기독교를 종합하려는 노력들이 시작되어 변화를 가져왔으나 완전한 성공을 못하고
- * 후에 Ockham 등에 의해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 * 중세 기독교학자들의 견해는 Aristotle과 Ibn Sina를 넘어서지 못했다.
- * St. Bonaventure
 - * 플라톤적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함.
 - * 지식의 2 근원: 영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
 - * 심적 능력은 - 섭생적 능력, 감각적 능력, 지능, 의지 등이다.

2-2-22

2-2장 file no.22

중세 중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번역 소개되면서 지적 르네상스가 왔고, 지식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비종교적 생각들이 전개 되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적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연결, 종합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새로운 관점의 변호를 이루어 내긴 했는데,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설명한 책이라든지 이슬람 학자들이 제기한 자연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책들은 중세 기독교 시대에서는 금서, 금지된 책으로써 그런 책을 보거나 언급할 수 없는 문헌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에 들어서 오컴(Ockham) 등이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과학적 생각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뒤에 가서 과학형성을 설명할 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아퀴나스 이전

* Anselm(1109)

- * - 종교에서 지각과 이성적 사고의 역할을 다름
- * - 관념론을 지지, 감각 쏘는 감각의 중립성이 자연의 지각적 현실의 원천으로 간주
- * 진리는 'inner sense' 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 마음에 의해 주어지며
- * 마음의 creative perception에 의해서 감각의 중립성이 사용되어 참이 주어진다.
- * 마음은 참 이데아와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2-2-23

2-2강 file no.2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퀴나스 이전에 등장한 학자들의 생각을 잠깐 살펴보는데, 아퀴나스 이전시대의 학자로 캔터베리의 주교 Anselm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에서 지각과 이성적 사고의 역할에 대해 다루며, 기독교적 신앙과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론을 조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합리론의 관념론을 지지를 하긴 했지만, 감각 또는 감각의 중립성이 자연의 지각적 현실의 원천으로 간주했습니다. 진리는 5감의 내적 감각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주어지며 마음은 창조적 지각에 의해서 감각의 중립성이 사용되어 참이 주어지며, 마음은 참 이데아와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그는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3.2. St. Thomas Aquinas (1224-1274)



- * Aristotle의 자연주의와 신학/교리를 조화시키려함
- * 인간의 이성은 세상에 대한 지식만 앎. 신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
- * 철학과 종교는 구분되며 양립불가는 아니지만 연결은 안 된다
- * 그러나 아퀴나스의 실제에서는 철학과 종교; 이성과 계시가 접촉된다고 봄
- * 후의 학자들에 의해 이 둘이 분리가 되면서 과학이 탄생하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다.

2-2-24

2-2장 file no.24

안젤름 이후에 13세기에 등장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기독교 신부이었지만, 그러한 제한을 넘어서 중세에 가장 중요한 학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Thomas_Aquinas).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와 신학 교리를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세상에 대한 지식만 앎, 신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종교는 구분되며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이성과 신의 계시가 접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철학과 종교를 따로 따로 이야기하였는데, 이후의 학자들이 철학과 종교를 뚜렷이 분리시켜 논하면서 과학이 탄생하고 점차 기독교적 사상이 쇠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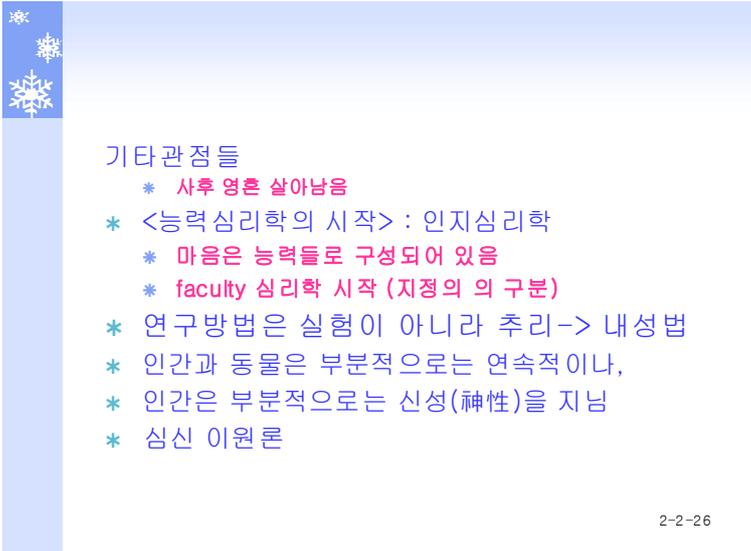
- * Aristotle에서 영감을 받고 또 그 접근을 따르지만,
- * 10세기의 관심사가 달랐기에 아리스토텔레스와는 관점이 다소 달랐다.
- * 그가 당면하였던 문제들:
 - *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가?
 - * 영적인 대답보다는 이성적 증명이 요구됨
 - * 신에게의 인간의 의무는?
 - * 죄란 무엇인가?
 - * 인간 삶의 종말은?
 - * 영혼이 죽음 후에도 남는가?



2-2-25

2-2장 file no.25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영감을 받고 그의 접근을 따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희랍시대와 13세기(아퀴나스가 살던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신부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던진 주요 물음들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신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신에 대하여 지니는 의무는 무엇인가, 죄란 무엇이며 사망 후에도 영혼이 과연 남는가] 등의 문제였습니다.



기타관점들

- * 사후 영혼 살아남음
- * <능력심리학의 시작> : 인지심리학
 - * 마음은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음
 - * faculty 심리학 시작 (지정의 의 구분)
- * 연구방법은 실험이 아니라 추리-> 내성법
- * 인간과 동물은 부분적으로는 연속적이거나,
- *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신성(神性)을 지님
- * 심신 이원론

2-2-26

2-2강 file no.26

그의 심리학 관련 기타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는 능력(faculty) 심리학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마음, 의식의 내용을 분석해서 탐구하여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능력들, 즉 사고, 기억, 지각 등의 여러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능력심리학이 아퀴나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 정, 의를 구분하는 분류의 시작이 플라톤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아퀴나스는 그런 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또 그는 인간과 동물은 부분적으로 연속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러나 동시에 신의 계획과 개입을 인정했고 심신 이원론을 인정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아퀴나스의 탐구 방법은 실험이 아니라 내성법에 의한 것이었기에 그는 중세에 내성법을 발전시킨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quinas의 마음관

- * 1. 이성적 영혼:
 - * Cognition: 지적 appetite
- * 2. 감각적 영혼:
 - * 감각적 성정
 - * 내적 감각: 상상, 기억, 추정, 공통감각
 - * 외적 감각: 5감
- * 3. 섭생적 영혼: 섭식, 확장, 생성



2-2장 file no.27

아퀴나스의 마음 관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영혼을 이성적 영혼, 감각적 영혼, 섭생적 영혼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는 멀리는 플라톤의 영혼 분류, 가깝게는 아퀴나스보다 200 여년 더 먼저 있었던, 이슬람문화의 최고 학자이었던 시나(Ibn Sina)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역사적으로는 (연대로 보면) 중세 기독교 문화 이전에 있었지만 본 강의에서는 강의 편의상, 중세 기독교 문화를 설명한 다음에 별도로 이슬람 문화를 다루어 (슬라이드 35-36) 설명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Ibn Sina의 분류체계의 영향을 받아, 영혼을 식물, 동물, 인간의 세 부류와 관련지어 다음처럼 분류하였습니다.

[1]. 섭생적 영혼(Vegitative Soul); 주로 식물적인 영혼으로 식물, 동물과 인간에 공통적인 영혼입니다. 이의 하위 요소로, 신체를 유지하는 영양, 신체의 적절한 크기를 추구하는 증강, 신체를 재생산하는 생성을 아퀴나스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2]. 감각적 영혼(Sensitive Soul); 주로 동물적인 영혼으로 동물과 인간에 공통적입니다. 이의 하위요소(심적 기능 또는 능력)로는 아퀴나스는 다음 셋을 거론하였습니다.

감각적 추동 (감각대상과의 접근과 회피에 관여되는 현실적 욕구, 그리고 목표에의 장애에 대해 저항하는 추동을 내포함), 내적 감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각하는 것인 상상; 대상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기억; 대상의 해로운 측면과 이로운 측면을 직관하는 추정 (estimation); 감각들을 통합하는 공통감각(common sense) 포함), 그리고 외적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감 포함)입니다.

[3].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으로, 이의 하위 요소로는 일반적 인지(보편성에 대한 지식과, 보편성을 추상화하는 능동적 지성, 보편성을 구현화하는 수동적 지성)와, (보편적 선을 추구하는) 지성적 추동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 * 이성적 영혼
 - * 인지
 - * 보편성에 대한 지식
 - * 능동적 지성 - 보편성을 추상화
 - * 수동적 지성 - 보편성을 구현화
 - * Intellectual appetite
 - * -보편적 선의 추구
- * 감각적 영혼
 - * Sensitive appetite
 - * - Concupiscible - approaches or avoids sensed objects
 - * - Irascible - resists barriers to goals
 - * Interior Senses
 - * - Imagination - apprehends absent object
 - * - Memory - preserves of images of object
 - * - Estimation - Intuits harm or benefit of object
 - * - Common sense - Integrates special senses
 - * Exterior Senses
 - * - Sight/ hearing/ Smell/ Taste/ Touch
- * Vegetative Soul
 - * Nutrition - 신체를 유지
 - * Augmentation - 신체의 적절한 크기를 추구
 - * Generation - 신체를 재생산

2-2-28

2-2강 file no.28

슬라이드 28은 바로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 * Estimation에는
 - * estimation proper -동물적 불수의적인 반응
 - * -양이 이리를 보고 도망감
 - * cogitava - 인간에게만, 이성적 통제 하의 추정/ 선택적 결정
자유의지의 통제 하에 - 의제와 관련
- * practical intelligence를 없애고, active intellect를 인간 영혼에 귀속
- * 신체는 마음을 잡아두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과 신체를 서로를 채우는 것
- * 인간은 감각에서 오는 것만 알지, 생득적 이데아는 없다.
- * 모든 사고는 심상을 요한다.

2-2-29

2-2강 file no.29

아퀴나스는 내적 감각의 요소기능인 추정(estimation)에 대하여, 양이 이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과 같은 불수의적 반응 류의 추정일반(estimation proper)과, 인간에게만 있고 의제와 관련하여 자유의지의 통제 하에 이성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인지(cogitava)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퀴나스는 이전에 제기되었던 실용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개념을 없애고 능동적 지성을 신이 아닌 인간에게도 귀속 시켰습니다. 또한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비하하여 생각하였던 이전의 생각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서로를 채우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에서 오는 것만을 알뿐이지 플라톤의 주장처럼 생득적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물론 신은 예외였습니다.



- * 영혼이건, 신이건 간에 이에 대한 직접적 접근 지식은 불가능하고 모두다 간접적 지식만 가능
 - * 신은 세상을 살펴본다 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 *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낸 것인 우리의 행위를 보고야 안다.
- * 기독교적 자연주의
 - * 기독교적 과학이며, 신앙에 의해 한계지워진 관점, 자연주의를 도입하였지만 기독교의 틀 내에서의 도입이었고, 후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성과 계시가,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는 추후 간계를 거쳐야 했음

2-2-30

2-2강 file no.3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하여 아퀴나스의 생각들이 설명됩니다. 그에 의하면 영혼이건 신이건 간에 이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접근 지식은 불가능하고 간접적 지식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둘러보아서 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신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인간 자신의 행위를 보고 인간 자신을 알게 된다는 일종의 경험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기독교적 자연주의를 전개했다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과학 또는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 한계 지어진 그런 자연주의를 도입을 했고,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는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는 데에는 아퀴나스 이후의 여러 세대를 거친 지적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3.3. 아퀴나스 이후

- * Vives (1492-1540)
 - * 정신병 (정서적 와해)
- * 두뇌 - 행동에 영향
- * 생각의 연합
- * 정서의 연구

2-2-31

2-2강 file no.31

아퀴나스보다 270여년 이후에 활동한 스페인의 철학자 비베즈는(1492~1540)는 (<http://plato.stanford.edu/entries/vives/> 의 5절에 그의 심리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아동

교육과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1538년에 발행한 책 “De anima et vita”에서 그의 심리학적 생각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우리는 영혼의 본질이 아닌 영혼(마음)의 기능을 탐구하여야 하며, 정서적 와해에 의한 정신병이 비롯됨을 언급하고, 사람들과의 언어적 인터뷰 자료를 강조하여 정신분석학의 시조라고 불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G. Zilboorg, 1941: A History of Medical Psychology, 1941). 그는 정서가 마음과 행동에 영향주는 것을 언급하여 오늘날의 정서심리학적 연구 출발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두뇌가 행동에 영향 준다는 것과 생각의 연합에 대한 입장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서구 문화에서 이러저러한 사조들이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경험과학의 발전과 과학적 심리학 발전에 중요한 기여는 다음 슬라이드의 이슬람 문화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4. 이슬람의 능력 심리학

- * 유럽 중세 기독교 시대에서 자연주의, 경험론, 심신일원론과 귀납법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은 금서;
- * 플라톤의 서적만 허용됨;
- * 그러나 이에 반하여
- * 이슬람에서는 희랍의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문물을 살리고 발전시킴.

2-2-32

2-2강 file no.32

서구 중세의 기독교 시대에서 자연주의, 경험론, 심신일원론과 귀납법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은 금서로 다루어져 있었고 플라톤의 서적만 읽어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에 반하여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희랍의 자연주의, 경험주의, 생물적 접근들이 살려지고 발전되어졌습니다.



- * 이슬람에서는 Aristotle의 자연주의적 능력 심리학에 기초한 능력심리학이 발전됨.
- * Aristotle의 관점이 신플라토니즘에서 해석되고
- * 이에 Aristotle의 심리학이 정교화되고
- * 이것이 로마와 이슬람 의학과 조합된 관점이 제시됨.
- * 신플라토니즘에서
 - *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 위치에 있음

2-2-33

2-2장 file no.33

이슬람 문화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재해석되고 정교화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적 능력(faculty) 심리학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에서 로마와 이슬람 의학과 조합된 관점이 제시되고 발전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위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지녔습니다.



- * 이를 Aristotle의 심리능력심리와 결합하면
- * 마음의 5감각은 동물적 신체에 매어 있고
- * 능동적 지성인 순수 이성은 신에게 연결되어진다.
- * 학자들마다 이성적 영혼과 신체적 감각 사이에 '내적 감각'을 여러 유형을 제시했었다.
- * -이러한 시도는 유대, 이슬람, 기독교의 관점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정교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 이슬람의 Avicenna라고 불리는 Ibn Sina(980-1037)였다.

2-2-34

2-2장 file no.34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과 자연주의, 경험주의 사조

가 결합되어서, 마음의 5감각이 동물적인 신체에 매여 있다는 (그러나 능동적인 지성인 순수이성은 신에게 연결되어있다고 봄)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이슬람에서 계속 발전했는데, 이런 관점을 제시한 대 학자가 이슬람의 Ibn Sina이었습니다.

Avicenna/ Ibn Sina(980-1037)

He is perhaps the best known name of all Islamic physicians.

Born in 980 in a town near Bukhara in Central Asia,

he traveled widely in the eastern Islamic lands. Cenna published the first textbook of medicine on earth. That textbook called the Canon of Medicine (Laws of Medicine), forms the basis of modern medicine. Cenna put together all the medical knowledge available in his time all over the world in his textbook. The most important thing he taught us was to treat the cause of a disease. So we should not treat the patients pain just with pain medications but to really focus on the cause.



2-2-35

2-2장 file no.35

이 슬라이드에서 영문으로 이브 시나의 그림과 시나(Abu Ali al-Husain ibn Abdallah ibn Sina; 라틴어로는 Avicenna; AD. 980 - 103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나는 (<http://www.muslimphilosophy.com/sina/art/ibn%20Sina-REP.htm>) 고대 경험주의적 헬레니즘 전통을 이어받은 중세기의 동이슬람(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문화의 최고의 철학자, 과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중세 이후의 의학과 철학 발전에서 그의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아마도 중세 스콜라 철학이후 13세기의 첫 과학적 혁명이 당시의 많은 서구 학자(신부)들이 시나의 책을 읽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시나의 경험 과학적 공헌].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앨버트마그누스 (Albert Magnus)에 영향을 주었고 서구 과학이론의 기초를 놓은 베이콘(다음 주에 언급됩니다.)도 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나는 의약학적 논의에서 인간의 질병의 원인에 초점을 두어 사람을 치료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약물의 효과를 실험, 검증하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안 하였습니다

1. 약은 다른 우연적 부수 특질을 지녀서는 안 된다.
2. 약은 복합적 질병이 아닌 단순한 질병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약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검증(test)되어야 한다.
4. 병의 강도와 그에 대응되는 약의 질은 비례되어야 한다.
5.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요인)은 관찰되어야 한다.
6. 약의 효과는 일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7. 약 관련 실험은 종국에는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경험적, 실험적 접근 체계는 오늘날의 실험실 절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본 논리는, '원인이 없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었고, 이 논리를 사용하여 그는 의학에서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인류 최초의 의학 텍스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의 알라 신을 신봉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알라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기에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그에게는 (이슬람 문화 전체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없었습니다.

[시나의 영혼 구조체계]. 심리학의 역사상에서 본다면 플라톤의 영혼 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구조, 이브 시나의 영혼 구조,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 구조, 데카르트의 마음의 (영혼) 구조 의 네 이론을 영혼(마음)에 대한 체계를 제안한 중요한 이론들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동물적 능력이 이성적 영혼을 다음의 기능에 의해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1. 상상과 추정, 2. 부정적과 긍정적 관계, 감각을 통해 경험적 지식의 획득.

시나에게는 몸은 영혼의 부수적인 도구로써 영혼의 발달과 그 기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나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인 생각을 제시 하여, 자연주의적인 과학적으로 마음을 접근하는 입장을 이슬람 문화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나의 영혼(마음) 이론 체계를 보세요.



Ibn Sina(980-1037)

- * 1. Agent Intellect: A divine light creating human knowledge; 인간의 영혼(마음)을 생성
- * 2. Rational Soul:
 - * Contemplative Intellect :- knows universals
 - * Practical Intellect :-manages everyday affairs
- * 3. Sensitive Soul
 - * 1. Appetite – 쾌 추구, 고통회피
 - * 2. Interior Senses
 - * 3. Exterior Senses –5감각
- * 4. Vegetative Soul – 성장, 섭식, 생육

2-2-36

2-2강 file no.36

Ibn Sina에 의하면, 물질은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성은 나누어질 수 없기에, 마음은 물질적인 몸을 넘어서 존재하는 비물질적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일생동안 450여 저술을 한 그의 문헌 중에서 주로 심리학 관련 주제를 다룬 ‘Al-Shifaa’라는 그의 책 내용에 의하면 영혼의 구조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생적 영혼 (Vegetative Soul) - 번식, 성장, 영양 관련의 식물적 영혼

[2]. 감각적 영혼(Sensitive Soul): 세 개의 하위 요소(심적 능력)가 있는데, 첫째는 욕구 (Appetite; 현대 심리학의 동기(motivation)에 유사한 개념)로 쾌를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심적 요소입니다. 둘째는 내적 감각(Interior Senses)으로 이에 하위요소(능력)로 기억, 추정(estimation), 상상(상상을 하는 인간적 상상, 이미지를 조합하는 동물적 상상, 대상의 복사 이미지를 보존하는 보존(파지)적 상상의 세 하위요소가 있음), 공통감각(5감을 조합하는 요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는 외적 감각(Exterior Senses)으로 5감이 있습니다.

[3]. 이성적 영혼 (Rational Soul): - 두 종류가 있는데 보편성을 아는 사변적 지성 (Contemplative Intellect)과 일상적 일을 처리하는 실용적 지능(Practical Intellect)입니다.

[4]. 신적인 행위자(Agent)의 지성(Intellect): 이는 인간영혼 밖에 있으며 이 신적인 지성(빛)이 인간 앎을 창조한다고 봅니다.



* 3.2. Interior Senses 추가 설명

- * ◀ Interior Senses를 다음의 7개의 심적 능력으로 봄
- * Recollection :- recalls intuitions from memory
- * Memory :- stores intuitions from estimation
- * Estimation :- intuitions about benefit and harm
- * Compositive human imagination - Creative imagination
- * animal imagination :- combines images
- * Retentive imagination :- image-copies of objects
- * Common sense :- combines the five exterior senses
- * ◀ 이 7개의 능력이 뇌의 각기 다른 부분에 있다고 봄
- * appetite = motive power
- * Intuition :
 - * - simple ideas of the object's essence

2-2-37

2-2강 file no.37

그는 또한 감각적 영혼의 내적감각을 7개의 심적 능력(mental faculties)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력, 회상력, 추정력, 상상력의 세 종류 (조합구성하는 창의적 상상력, 이미지를 조합하는 동물적 상상력, 대상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보존하는 상상력) 그리고 5감을 통합하는 공통감각입니다. 이외에 영혼은 동기적 추동을 지니고 있고, 대상의 본질에 대한 아이디어인 직관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영혼 분류 체계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전달되고 후에 데카르트의 영혼 체계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물질적 몸을 넘어선 영혼, 마음을 설명하는 중에 '공중을 나르는 사람(flying man)' 비유가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늘을 나는, 그래서 땅을 딛고 있어야 하는 신체적 감각 입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여 물질적 요소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영혼, 마음, 지적 능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을 나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자신이 모든 감각적 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과 그러한 '자아'가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 데카르트

에 전달되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cogito 인지적 선언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나는 보상과 벌에 대하여도 입장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신과 악마의 대립에 기초한 생각이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신경적 기초를 지닌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 * Averroes
 - * 스킨라 적 관점의 선구
- * Al-Kindi
 - * 생리심리학의 선구
- * Maimonides
 - * 심리-신체 병의 선구

2-2-38

2-2강 file no.38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당시의 시나 이외의 Averroes 등 세 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 중세문화의 번성

- * 여성, 성, 낭만적 사랑의 개념의 발전사
- * 개인성의 발달
- * (과학) 기술의 발달
- * 인본주의의 대두
- * 종교개혁

- * → 별도 파일 참조

2-2-39

2-2강 file no.39

그 다음에 ‘중세문화의 번성’이라는 슬라이드로 가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중세에서 기독교

주의가 무너지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종교 개혁이 대두되는 그런 배경이 제시되는데, 각주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중세 기독교시대 즉 과학의 암흑시대의 여성의 개념, 낭만적 사랑의 개념, 성의 개념, 개인성 개념등에 대한 중세의 생각들을 설명하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²⁾

2) [1. 중세의 여자, 성, 낭만적 사랑의 개념의 발전사]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기를 여자 유아는 출산 시부터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세 기독교 시대의 일반적 생각은 구약 성서 내용에 따라 여성과 성을 연결하고, 여성을 죄와 유혹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 서도 좋은 여성(성모 마리아와 같은 처녀와 보통 어머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일종의 정신분열적 태도를 취하였었다. 카톨릭 신부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여성 특유의 기능은 잉태이고 기타 목적에서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독교 초기에는 여성들이 모자람 없는 참여자로 종교에 참여하였고, 중세 초기에도 강한 여성 인물이 많았다. 그러나 중세가 진행됨에 따라, 기독교는 로마의 결혼 혐오증과 플라톤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혐오감'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승려의 결혼 금지, 여성의 설교 금지 등의 조항이 생겨나고, 여성은 2등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세의 기독교는 성을, 혼외이건 혼내이건, 죄악의 죄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체에 비해 모든 성행위는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성 Jerome은 여성을 신체적 유혹과 결부시켰고, '여성은 악마에의 문이며, 사악의 길이이며, 뱀의 물음이다. 한마디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상이다' 고 했다. 이 당시에는 성의 죄의 짐을 대부분 여성이 지게 된 것이다. 임신부도 멸시를 받았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죄의 더러움'의 낙인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고, 아들을 낳은 후에 33일 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었으며, 딸을 낳은 후에는 66일 동안 교회에 올 수 없었다. 임신부나 출산한 여인이 죽으면 교회관련 묘지에 묻힐 수 없었으며, 그런 여인은 천당으로 들어감이 거부되는 것으로 믿었다.

한편 동정녀는 극도로 존중되었다. 이것이 일종의 컬트(cult)로 발전하기도 했다. 여성은 최상의 경우는 신의 그릇으로 간주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의 오물통으로 간주된 셈이다. 이런 생각들은 르네상스에도 이어져서 북카치오는 여성을 '수천의 혐오스런 정열에 사로잡힌 불완전한 동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았다. 이런 억압에 반항한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교(당시에는 사교)에 여성들이 몰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낭만적 사랑'을 발명한 것이다. 중세의 대중적 노래, 민속, 학생들의 노래나 시 등에서 단순한 성이 아니라 낭만적 사랑이 스며든 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사랑 이야기, 노래, 낭만에 대한 생각, 글, 연극 등이 모두가 12세기의 유희시인들의 업적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날 낭만적 사랑이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세 인간에 의해 비로소 발명된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은 결국 중세의 계급적, 교회 중심적, 제도적 틀을 부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 이상 신이나 왕이 내린 제도적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게 된 것이다. 교회, 국가, 사회 대신 두 사람 사이의 낭만적, 영적, 육체적 관계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 이후에 휴머니즘이, 르네상스가 싹트게 되는 바탕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

[2. 중세의 개인성의 발달 역사]

중세의 이전이나 중세 전반기 대부분에서는 개인이나 개인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중세를 거치면서 개인성(individuality)의 개념이 발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르네상스에서도 그리 강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플라톤 전통이 살아 있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보편성만 알지 개인성은 알 수 없다고 했기에, 개인성을 그 자체대로 하나의 주 관심사나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 했던 것이다. 플라톤의 입장을 편협하게 해석하면, 보편적인 인간성은 알아도 특유한 특성을 지닌 개인은 알 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지위가 덜 중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경향은 중세에서 심리학적 관점을 편 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는 현재의 과학적 심리학에서도 Wundt 이래 보편적 기준-범칙적인(nomothetic) 심리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 개인 위주의 심리학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성 개념의 탄생은 철학이나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고 중세 후반기의 대중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중세에서 개인의 자서전, 역사, 이야기, 초상화 등이 강조되면서 개인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세에 개인성이 그래도 강조되었던 학문적 문화는 윤리학과 신비론이었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의도는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성이 강조된 것이었다.

중세의 신비주의는 전통적 교회나 신학에서 시작되었기보다는 대중적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신비주의에 의하



6. 중세후기

- * 14세기에 중세를 막을 내리게 하는 사건들
 - * - 도시 발달,
 - * - 자본주의, 국가, 경제불황, 흑사병 등
 - * - 사람들 회의적 냉소적
 - * - 세상사를 신의 원리 하나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 * - 인간 이성을 중시하고 분석적, 경험적 접근 발전
 - * -> 과학

2-2-40

2-2강 file no.40

중세 후기를 보면 14세기에 중세를 막을 내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고고시절 문화사나 역사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세상사를 신의 원리 하나에 의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이제는 인간 이성을 중시하고 분석적, 설명적 접근을 하는, 그래서 과학적 접근이 대두되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면 한 개인과 신이 직접 통할 수 있다. 교회라는 제도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개인적으로 신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처음에는 교회의 박해를 받았으나, 점차 번지게 되며 개인성의 중요성이 인간 사회에서 부각되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



6.1. 경험주의의 재탄생

- * 중세 철학자들은 심리학과 존재론을 혼동: 각 심적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다고 믿음
- * Plato -Forms; Aristotle - real essence, entelechy; 중세인 -신의 마음의 생각들
- * 보편에 대한 지식만; 보편 명제에서 도출된 지식만; 신적인 이데아는 형이상학적으로 참이다.

2-2-41

2-2장 file no.41

그 다음 슬라이드에 '6.1절. 경험주의의 재탄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심리학과 존재론을 혼동하였고, 각 심(리)적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신, 우주적 본질 등) 있다 라고 믿었는데, 경험주의가 탄생하면서 이러한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오컴(Ockham) 신부의 관전이었습니다.



6.1.1. William of Ockham(1290-1349):

- * - 지식은 세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오류가 없는 경험을 통해 (intuitive cognition) 시작됨
- * - 직관적 인지는 대상과 그 질을 알게되며 따라서 단순히 opinion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인 것에 대한 knowledge를 제공.
- * abstractive cognition이 보편성을 아나, 보편성이란 심적 개념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만 있음. 개별자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서 어떻게 보편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나? 대상들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 * 보편성이란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 문제이다.
- * 지식의 타당성의 검증은 -직관적 인지/ 관찰에 의함
- * -Augustine처럼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직접적, 직관적, 내성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2-2-42

2-2장 file no.42

오컴(William of Ockham 또는 also Occam, Hockham; 1288-1348 경; 참고사이트 :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of_Ockham)에 의하면 지식은 신에 의해서나 생득적

이데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오류가 없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지식이 시작된다. 직관적 인지는 대상과 그 질을 알게 되며 따라서 단순히 견해(opinion)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인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생성한다.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영혼



- * 영혼이 의지나 지성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 * 심적 능력이란 심적 행위에 대한 이름일 뿐이다.
- * 의지는 영혼이 의하는 행위일 뿐이고,
- * 지성은 영혼이 생각하는 행위일 뿐이다.
- * 능력을 영혼과 별개의 능력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음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쓸 데 없는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이다.
- * 개념은 학습된 습관이고 이데아는 경험에서 습득된 것이다.
- * 우리는 경험에서 도출된 습관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경험에서 습득된 습관으로서의 이러한 개념을 제외하면 인간은 동물처럼 외적 자극에 대해 단순 반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습관화된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감각된 실제의 외적 자극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습관은 신체적 개념이 아니라(행동주의자의 입장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2-2-43

2-2장 file no.43

오컴은 영혼(soul)이 의지나 지적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심적 능력이란 심적 행위에 대한 이름뿐인 것이다 라고 해서 영혼(soul)의 개념을 마음(mind) 개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의지는 영혼에 의하는 행위이며 지성은 영혼이 생각하는 행위일 뿐이고, 마음의 능력을 영혼과 별개로 설명하는 것은 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나 개념은 미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험,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 * 신앙과 이성은 구분된다. 우리가 비물질적이고 불멸인 영혼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우리의 경험이나 직관적 인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 플라톤의 Forms이건, 기독교의 신의 이데아이건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다.
- * 오컴의 면도날: Ockham's razor

2-2-44

2-2장 file no.44

그는 이어서 신앙과 이성은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물질적이고 불멸인 영혼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우리의 경험이나 직관적 인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래 거론되고 강조되어온 ‘이데아’(관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일 뿐이다 라는 반 관념론, 반 합리론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오컴의 면도날’ 이라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Ockham's razor

- * <http://www.rathinker.co.kr/skeptic/occam.html>
- * '불필요한 다수성(Plurality)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cesitate)'.
- * 중세 영국의 철학자이자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윌리엄 오브 오컴(William of Ockham, ca.1285-1349)의 말이다.
- * 중세 철학의 일반적인 원리인, 오컴의 면도칼은, 오컴 오브 윌리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윌리엄이 빈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붙게 되었다.

2-2-45

2-2장 file no.45

슬라이드에 ‘오컴의 면도날’에 관한 인터넷 링크 주소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다수 요인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 개념의 핵심입니다.



- * 오컴의 면도칼은, 절약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라고도 불려진다.
- * 최근에는 '설명은 단순한 것일수록 뛰어나다',
- * '불필요한 가정을 추가하지 마라'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복잡한 가정을 세워서는 안된다.
- * 18세기의 조지 버클리 →
 - * 물질적 존재(material substance)를 불필요한 다수성이라고 간주하고 오컴의 면도칼을 사용해서 물질을 제거하고 주관주의 제안
 - * 버클리에 따르면, 무엇을 설명하든 간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마음과 개념뿐이다.

2-2-46

2-2장 file no.46

이것은 때로는 절약의 원리라고도 지칭되는데, 요점은 설명은(현대 과학이론에서는 과학적 설명은) 단순한 것일수록 뛰어나며,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군더더기의 것을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병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병원균(바이러스)이 침입해서 그렇다 라고 설명하면 단순하게 설명되는데, 거기 에다가 신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 신이 개입해서 나한테 병이 일어났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설명은 단순한 설명을 채택을 해야지 불필요한 가정은 추가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불필요한 가정은 면도날 사용하는 것처럼 다 제거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하고 최종의 가장 단순한 것만 살려두어 남겨라 하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 개념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중세 후기에서 과학적 원리, 과학적 사고를 출발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 분석과 이성의 한계

- * 중세인들은 인간의 이성이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 * Aquinas처럼 신의 진리와 철학적 진리가 하나이며 통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
- * 이에 대해서 신비론자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철학이 신적인 것을 알 수 없다고 했다.
- * 히랍시대나 중세의 학자들은 Plato, Aristotle, Aquinas 등을 포함하여 관념론적 실재론 또는 영적실재론을 믿어서 보편적 개념이 어떤 지속적인 Forms나 essence 이건 신의 마음 속의 이데아에 상응한다고 믿었다. 보편의 실재를 믿은 것이다.
- * 반면 이를 언어적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로 이 보편에 대한 중세의 분석이 기독교적 관점을 붕괴하고 과학을 출발시키는 한 흐름이 된 것이다.

2-2-47

2-2강 file no.47

다음 슬라이드에서는(6.2절) 중세의 ‘분석과 이성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중세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오컴 식의 생각이 전개되면서 이성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 P. Abelard:
 - * 영원한 진리 없다
 - * 보편 개념은 심리적인 것
 - * 보편의 개념이 명칭이며, 개념이며 심리적 인 것이지, 영원한 Forms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편이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것일 뿐이다(conceptualism).
- * Ockham의 비판과 그의 이성과 신앙의 분리와, 보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 * 인간 지식의 토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 * 인간이 안다는 보편이 신의 이데아를 반영하지 않으며, 개인의 지식, 경험에 의존한다면 우리들의 지식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 Ockham이 전에는 지식은 그 자체로 수용되거나 당연시되었다.
- * 그러나 이후부터는 **지식의 ‘정당화justific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Forms와 신에 의지하지 않고도 지식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게된 것이다.

2-2-48

2-2강 file no.48

오컴 이전에는 지식은 그 자체로 수용되거나 당연시되고 절대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오컴 이후에는 면도날처럼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했으니, 지식의 정당화

(justific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보편적인 형상(form)이나 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식과 의견을 구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세 이후의 과학적 사고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 14세기: Nicholas of Autrecourt
- * 의지나 이해라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적 행위의 하나일 뿐이다.
- * 심리학은 형이상학이 아니다.
- * 우리가 아는 것 모두는 감각이 전하는 것이다. 지식은 경험에 근거하여 있고, 지식들은 appearance에 가능한 가깝게 가는 것에서 온다. 경험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최선의 지식이다.
- * 감각적 지각에서 Forms나 essence나 신적 이데아를 추론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 신이 인간의 약한 감각, 지각의 오류와 착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따금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whatever appears is true.
- * 이러한 외적 대상에 대한 지식의 정당화가 경험주의, 과학의 출발점이며 현재의 인지심리학적 접근의 주 문제다.

2-2-49

2-2강 file no.49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14세기 프랑스 철학자 Autrecourt라는 사람의 입장이 거론됩니다. 그는 14세기 회의론의 대표적 인물이었는데, 그에 의하면 지성(Intellect)이나 이해라는 능력이 따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인간의 심적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다루는 심리학은 형이상학일 수 없습니다. 형이하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우리의 감각 경험이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앎, 지식은 경험에 근거하여 있고, 경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지식이 최선의 지식이며, 감각적 지각 경험에서 플라톤 전통에서 주장하는 초월적 형상(forms)이나 우주의 본질(Essence)이나 신적인 이데아를 추론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 즉 신이 인간의 약한 감각이나 지각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일상사에 이따금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Autrecourt의 이러한 입장과 오컴의 입장들이 외적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바, 즉 지식의 정당화 과정을 중세 기독교적 입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지식의 정당화가 현대 경험주의적 과학이론의 형성에 출발점이 되었고, 이것이 심리학이 과학으로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 전해져서 [지식 획득의 정당화가] 오늘날의 인지심리학의 주 문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인지심리학’, 또는 ‘과학인지과학’의 중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 * Ockham의 경험론,

- * 이성과 신앙의 분리는 희랍의 합리론 이래, 최대의 혁명이었다.
- * 그의 주장과 후예들의 주장은 인간의 지식을 현실세계에 국한시키고 따라서 신학을 파괴시킨 것이다.
- *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아퀴나스 등처럼 신적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통합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종교에 억눌려져있던 과학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2-2-50

2-2강 file no.5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오컴의 경험론을 다시 종합하는데 오컴의 경험론의 영향은(결과적으로는 이성과 신앙의 분리) 희랍 합리론 이래 최대의 생각 혁명이었습니다. 오컴 등의 입장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버리고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이 희랍의 합리론 이래 최대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컴이나 Autrecourt 등의 주장과 그 후대들의 경험론적 주장은 인간의 지식을 신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에 국한시키고 따라서 신의 개입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고전적 신학을 파괴시키고, 종교에 억눌려져있던 과학이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 중세의 현대과학

- * 자연주의적 scienticism

- * 경험론의 체계화

- * Bacon
- * Galileo Galilei
- * Keppler
- * 영국의 경험론자들

2-2-51

2-2강 file no.51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중세 후기에서 부터 베이컨, 갈릴레오, 케플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주의적 과학주의(scientism)가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대안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3. 중세의 현대과학에의 기초

- * 이러한 신앙/이성 분리의 움직임이 1277 파리의 Siger of Brabant 이래 시작되어 자연주의가 소생되었다(그러나
- * 이런 자연주의적 학자들은 테러를 받거나 암살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은 이전에 이슬람에서 있었으나 종교적 억압에 의해 실패하였다.
- * 그러나 유럽의 이때의 상황은 그런 전폭적 억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자연주의적 scientism 이 꽃피게 된 것이다.
- * **이에 따라 과학에의 관심이 늘고**
- * Grossetest(1168-1253),
- * Roger Bacon 등이 광학 실험을 수행하며, 과학, 경험주의, 실험, 수학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2-2-52

2-2장 file no.5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중세에서 이루어진 현대 과학의 기초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이러한 과학주의가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려는 사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3세기에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던 프랑스의 철학자 Siger of Brabant는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의 기독교체제에 의하여 후에 갈릴레오가 받았던 종교재판과 비슷한 재판을 받았고 결국은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슬람 문화의 Averrois 등의 경험주의와 Siger of Brabant 등의 입장은 Averrosism이라고 하여 당시 기독교 세력에 의해 많은 박해를 받은 혁신적 사조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이때의 상황은 이미 기독교가 그러한 전폭적 억압을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학자들과 일반인들의 경험주의적 과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결국은 인류 문화사에서 ‘과학’이(달리 말하면 과학이론의 체계화가) 서구에서 꽃 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그로세스텍, 베이컨 등이 광학 실험 등을 실시하며 객관적 지식 획득과 관련하여 과학, 경험주의, 실험, 수학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 * 이후 약 200년간은 중세 유럽의 경제적, 제도적 붕괴와 흑사병의 창궐로 과학이 진보 못함
- * * 이때까지의 과학주의자들도 대부분 이론적 과학론자였지 실험적 과학자가 아니었고 또 일상의 경험을 근거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는 지나침을 보였다.
- * * Galileo에 가서야, Plato가 보편을 가장 대표적 특수 예를 중심으로 설명했듯이, 모든 경험을 다 다루려 하지 않고 특정 경험을 선택적으로, 이상화하여, 즉 경험의 특정 면만을 고립시켜 과학적, 실험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 (strange mix of Plato & Aristotle)

2-2-53

2-2강 file no.53

그러나 이후 약 200년 동안은 중세 봉건주의 유럽의 경제적, 제도적 붕괴와 당시에 전 유럽으로 퍼진 흑사병 때문에 과학이 바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당시의 과학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처럼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지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런 과학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중세 후기에서 기독교적인 합리론이 무너지면서 과학적인 사고, 경험주의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경험적으로 실험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는 접근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을 다음 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즉 르네상스와, 과학적 경험적 연구(실험) 실제로 하는 과학의 발전이, 중세 이후의, 특히 17세기의 과학적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2주-2회차 퀴즈 (주관식)

- * 1. 중세 기독교 시대가 심리학 발달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 * 2. 어거스틴, 아퀴나스는 심리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 3. 이슬람의 문화와 과학은 심리학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 * 4. 중세 후기에서의 과학론의 재정립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2-2-54



2주-2회차 학습 정리

- * 1. 중세 기독교 시대는 플라톤적 접근과 비 경험적 접근을 통해 심리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 2. 어거스틴, 아퀴나스들의 인간 영혼, 마음, 의식 개념 분석과 내성법의 가다듬음은 심리학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 * 3. 유럽의 신비주의, 초월주의, 플라톤니즘의 비과학적 접근과 대비하여, 히랍의 자연주의, 과학적 접근을 계승하여 온 이슬람의 문화와 과학은 히랍의 심리학적 관점들이 중세 이후의 유럽의 과학 및 철학 사상이 되살아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 * 5. 특히 이슬람의 Ibn Sina의 심리학적 개념은 중요하다.
- * 6. 중세 후기에서의 Bacon 등의 과학론의 재정립은 유럽의 과학이 재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2-2-55

2-2강 file no.55

이번 주 얘기를 종합을 해본다면, 히랍에서 합리론과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제기가 됐고,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억압되다가 중세 후기에 가서 다시 이슬람 문화의 도움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 되살아나면서, 과학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되살아날 배경이 제기되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3주)에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과학적 접근의 발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